

## HRD 11월의 이슈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노동시장 정책 방향 공유
-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노·사 공감, '현장지원 TF' 논의 가속화



고교 일학습병행 업무관계자  
워크숍 감사장 수여  
**140여 명**



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수상  
**22개소**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41,909명**



9월 고용시장,  
월간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  
**63.7%**

Vol.116  
November 2025

# 11

## 일하는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년 5월 1일의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됨에 따라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사회적으로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추가로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체불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노동자 권익 강화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책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책의 끝단을 클릭한 채로 넘겨주세요. ✨

### HRD 현장

#### 정책동향

- 04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06 고용노동부,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노동시장 정책 방향 공유
- 07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노·사 공감, ‘현장지원 TF’ 논의 가속화

#### 현장동향

- 08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 방문] 소규모 정보기술(IT) 기업 종사자 간담회 개최
- 09 정부-채용플랫폼 함께 허위·과장 구인공고 근절 나선다
- 09 청년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미래 고용노동부 차관, 일학습병행 훈련 현장 방문
- 10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고교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11 고교 일학습병행 10주년, 현장의 주역에게 감사장을!
- 11 4060, 다시 일의 바다로! ‘2025 K-오션 채용박람회’ 개최
- 12 AI 전환에 대응하는 성장동력 확보
- 14 공정하게 묻고, 실력으로 답하다!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시상식 개최
- 15 “인적자원개발지수, 2년 새 53.9점에서 47.4점으로 하락”
- 16 올해 9월 육아휴직 사용자 14만명 돌파, 아빠 육아휴직 비중 약 37%
- 18 “특성학교 교육, 학생 주체성 발달에 긍정적 작용 확인”

### 고용 BRIEF

- 19 2025년 9월 고용동향

### 연구 INSIDE

- 20 Generative AI and Jobs
- 20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25
- 21 Education at a Glance 2025
- 21 How can innovative technologies transform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기관 LINK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insight

- 2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이란?



#### cover story

따뜻한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변화의 시대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통 권 제115호

발행일 2025년 11월 21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

052-714-8258

구독신청 및 문의 ws0920@hrdkorea.or.kr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0월 26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

##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소관 부서 :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9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사용

\*\*정청래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관 부서 :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앞으로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024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3일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번에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체불로 인해 피해받는 노동자를 더 강하게 보호한다.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 3 임금채권보장법

소관 부서 :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대지급금)에 국세채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하게 된다. 앞으로 국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도급 사업 등에서의 임금 등의 체불도 억제하고 대지급금의 회수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소관 부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4)

## 4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 관련 3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에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명확하게 했다.

##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소관 부서 : 퇴임고용과(044-202-7485)

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기업의 출자 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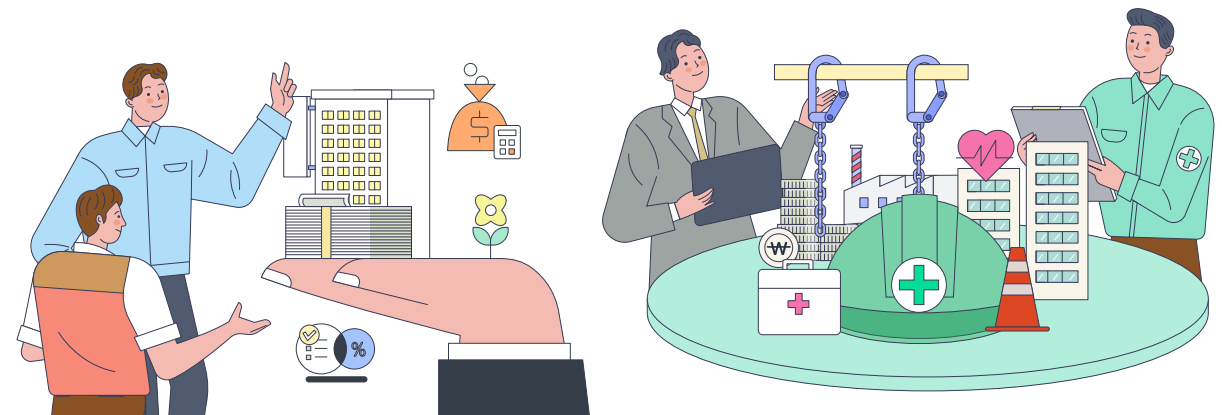
\*현행 연체금 부과방식은 납부기한을 1일이라도 초과하면 1개월분의 연체금을 납부하나, 개정안은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납부

## 6 고용보험법

소관 부서 :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229)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경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규모 고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노동시장 정책 방향 공유



2025년 11월 6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노동시장 정책 방향 공유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2차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 30년 만에 개최, 도하 정치선언문 채택
- 고용노동부, 디지털·그린 전환 대응 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보장 등 한국 정부 사회개발 정책 방향 공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4일(화)부터 11월 6일(목)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제2차 사회개발정상회의(Second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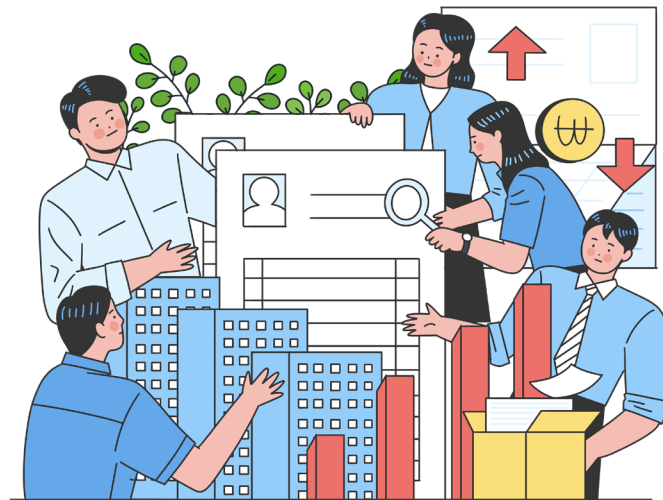
이번 회의는 199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차 사회개발 정상회의 이후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30년 만에 개최되는 사회개발 분야 국제회의로,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세계 구축(Build a more just, inclusive, equitable and sustainable world)”을 주제로 각국 정상 및 고위급 대표가 모여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의 사회개발 비전을 논의했다.

개회식에서는 사회개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의지를 담은 「도하 정치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선언문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지속,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등 오늘날의 복합적 사회·경제적 도전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빈곤퇴치 ▲사회통합이라는 코펜하겐 선언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제도의 구축 및 사회정책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

수석대표로 참석한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11월 6일 본회의 연설을 통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으로 인한 노동시장 전환,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격차 등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사회개발 관련 정책을 ①디지털·그린 전환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노동시장 구축, ③노동기본권 보장과 국제노동기준 이행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공유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한국은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함께 성장하는 협력 파트너로서 포용적 사회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과 연대의 노동정책’ 비전을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노·사 공감, ‘현장지원 TF’ 논의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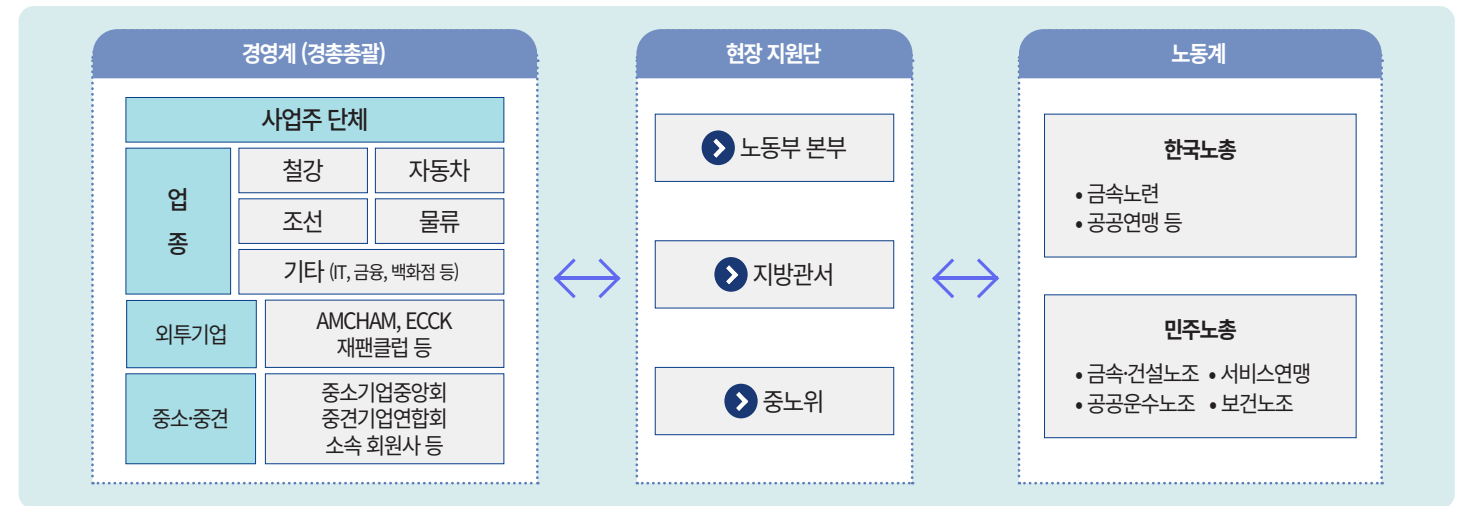
2025년 10월 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해 노·사 공감, ‘현장지원 TF’ 논의 가속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9월 한 달동안,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6차례, 73여개 기업과 집중 소통
- 노동계는 총연맹뿐만 아니라 산별·현장노조 의견까지 다각적으로 수렴
- 노·사 공감을 통한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 등 현장 안착 지원에 전력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사 공동의

노력을 다 하자는 경영계·노동계의 공감대를 토대로 9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지원 TF’를 운영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 체계 >>



<< 경영계-노동계 전방위 소통을 통한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

현재 노동부는 ‘현장지원 TF’를 통해 경영계 및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 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법리적 쟁점과 현장 우려사항을 파악·검토해 나가면서 불확실성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사업주단체, 주요 업종별(조선·철강·자동차·물류 등 협·단체, 기업),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협의체로 운영 중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호소하고 있어, 우선 9월 한 달 동안 16차례, 73여 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차관, 실·국장이 전방위적으로 집중적인 현장 소통을 실시했다.

기업들은 정부에서 현장의 업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줄 것을, 특히, 원·하청 교섭에 직면하고 있는 조선, 철강, 자동차, 물류업계 등은 신속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장 노동자가 직접 당면한 상황과 의견을 보다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양대노총의 주요 산별\* 노조의 현장 의견도 빠짐없이 듣고 있다. 주로, 총연맹 단위에서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한 주요 법리적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장 노동자(사내하청 노조 위원장 등)가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실태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국노총) 금속노련, 공공연맹, 포스코 하청 노조 등 (민주노총) 금속, 건설, 공공운수, 보건의료, 서비스연맹 등

노동계 현장에서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맞게 원·하청 간 안정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후속조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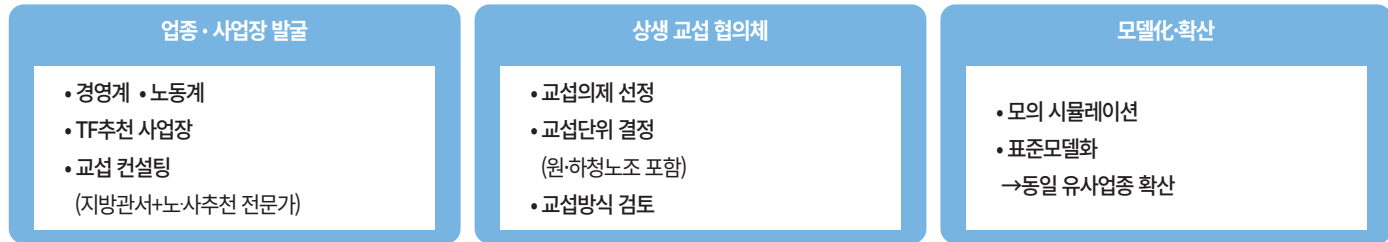
현재 노동부는 9월에 경영계 및 노동계의 현장 의견수렴 위주로 하고 있지만, 노·사가 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체계로 확대해 나가고, 기재부·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도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개정 노조법 관련 현장 상황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계획이다.

<< 원·하청 상생 교섭 현장 안착 지원 >>

아울러, 노동부 지방관서(8개 청·지청 노사상생지원과 중심)에도 ‘지역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면서, 권역별 원·하청 구조가 있는 주요 업종·기업들을 진단하고 있으며,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현장 교섭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 등에 대해서는 원·하청이 한 테이블에 모이는 ‘모의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를 통해 실제 교섭사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표준모델을 구축·확산해 나가고자 하며, 현재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현장지원 TF’ 등을 통해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 중에 있다.

<< 원·하청 상생 교섭 협의체 모델(案) >>



김영훈 장관은 “노조법 개정 취지는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게 하는 ‘대화촉진법’, ‘상생의 법’, ‘진짜 성장법’, 그리고 ‘중대재해감축법’이다”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원·하청 교섭 모델을 만드는 과정 전반에 ‘현장지원 TF’ 등을 통해 경영계·노동계·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 취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노·사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으고 조율해 나가야만 이 법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찾는 진정한 ‘상생의 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 방문] 소규모 정보기술(IT) 기업 종사자 간담회 개최



2025년 11월 3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 방문] 소규모 정보기술(IT) 기업 종사자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11월 3일(월) 구로를 방문해 소규모 정보기술(IT) 기업 종사자들을 만났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 방문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 문제, 공정한 보상, 일생활 균형 방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소규모 기업에서 느끼는 고용불안 문제를 공유하며 안전망 확대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부 장관으로서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들의 맘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안전한 일터에서 당당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면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콘텐츠 미디어 분야 종사자 타운홀 미팅(10.22.)에 이어 이번에는 구로 디지털단지 주변에서 일과를 마친 소규모 정보기술(IT) 기업 종사자와 만나 퇴근 후 피자와 맥주를 함께 나누며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보기술(IT) 기업에서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30~40대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영업직 등 종사자 15명이 함께했으며, 정보기술(IT) 기업에 종사하면서 느낀 업계의 현실과 고충, 정부에게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어지는 릴레이 현장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11월 25일(화)에는 모든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최대한 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에 담아낼 계획이다.

정부-채용플랫폼 함께 허위·과장 구인공고 근절 나선다



2025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정부-채용플랫폼 함께 허위·과장 구인공고 근절 나선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주요 채용플랫폼 대표와 해외취업 구직자 피해 예방 및 구인공고 모니터링 고도화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22일(수)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에서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피해 사건을 계기로, 민간 채용플랫폼의 허위·과장 구인공고 관리 강화 등을 위한 민·관 협업 방안 및 정부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울러 청년층 고용 여건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민간 고용시장 동향과 채용 경향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과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브레인커머스, 원티드랩 등 주요 채용플랫폼이 참석해 ▲구인공고 모니터링 강화 방안(한국직업정보협회), ▲최근의 민간 고용시장 동향 및 채용 경향(잡코리아)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잘못된 구인정보로 인한 취업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공공-민간 거짓구인광고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마련, 사회초년생 대상 체계적인 취업 주의사항 교육, 구인공고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구인공고를 통한 구직자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토대로 민간 취업플랫폼과 정기 점검 및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구인공고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노동시장과의 첫 연결고리 역할을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구인정보는 순식간에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며, “청년의 일자리와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민관 협업을 통해 청년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이고 정밀한 구인공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미래 고용노동부 차관, 일학습병행 훈련 현장 방문



2025년 10월 23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미래 고용노동부 차관, 일학습병행 훈련 현장 방문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학습병행 우수기업 간담회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23일(목) 오후 2시 일학습병행 기업 ‘케이씨씨 모빌리티(주)’를 방문하여 청년, 기업·학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의 어려움과 일학습병행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청년 일자리와 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일학습병행 제도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더 많은 기업과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2013년 도입된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 등 취업 희망자를 학습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현장경험(OJT)과 체계적인 이론교육(Off-JT)을 병행하며 숙련된 인재로 키우는 선(先)취업 후(後)학습 방식이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2만개가 넘는 기업과 17만명 이상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를 신규로 지정하는 등 제도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들의 채용연계형 직업훈련 모델로서 일학습병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 직업계고 5개소를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신규 지정, 대학 4개소를 일학습병행

특화대학(KAP)으로 전환 (\*25.9.) 2016년부터 10년째 일학습병행에 참여한 케이씨씨 모빌리티(주)는 우수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이다. 직업계고·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고교·대학 재학생 등을 선(先)채용하여 청년 노동시장 조기 진입에 기여하고 있다. 이 기업은 도제식 현장훈련이 필수적인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일학습병행 훈련을 통해 청년들을 우수 인력으로 양성하고 있다.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사의 실정에 맞는 별도의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훈련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현장교사가 학생들을 1:1로 지도하여 현장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2025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인재 양성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권창준 차관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학습병행 제도는 단순한 직업훈련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스스로 길러내고, 청년은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상생형 인재양성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고교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2025년 10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고교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려아연 안전교육센터'에서 산업현장의 화재, 추락 등 위험 상황에 대비, 안전 수칙·대응 방법 교육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0월 16일 고려아연 안전체험 교육장(울산 울주군)에서 고교 일학습병행 참여학교인 '금샘고등학교(부산 금정구) 학습근로자' 15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해 온 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무협회의 일환으로 산업현장을 오가는 고등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고려아연 '안전체험교육장'은 2025년 7월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안전 체험교육장'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 화재안전 및 심폐소생술 체험, 보호구 안전 및

플랜트 안전체험, 건설안전체험으로 구성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가상현실(VR) △안전체험교육장 체험 △안전보건 콘텐츠 등을 협업하여 안전교육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모든 학습근로자가 안전하게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무협약의 내용

### VR을 활용한 가상 안전 체험 지원

- **체험내용** 산업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산업군별 콘텐츠를 선별하여 체험형 VR 및 정보제공형 VR 체험 기회 제공
- **협약내용** 연 20회 지원

### 안전체험교육장 체험 지원

- **체험대상**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도제학교 학습근로자 및 예비학습근로자
- **체험장소** 제천, 담양, 여수, 익산 4개소

연번	교육장명	주소	교육 가능 인원
1	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78길 127-49	최대 40명 안전교육 가능
2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삼동2길 32	최대 40명 안전교육 가능
3	담양	전남 담양군 금성면 외추리 75-1	최대 40명 안전교육 가능
4	제천	충북 제천시 제천북로 143(한방엑스포공원 내)	최대 40명 안전교육 가능

- **체험내용** 안전시설물 및 가상안전 체험으로 2시간 내외 소요  
- (안전시설물 체험) 안전대 매달리기 체험, 고소작업대 체험, 응급처치 체험 등 약 30종 중 필요한 이론교육 및 체험실습 병행 실시  
- (가상안전 체험) 입체영상(3D) 시청 및 가상현실을 통한 위험요소 확인 훈련 실시
- **협약내용** 도제학교가 체험교육장 이용 희망하는 일자에 안전체험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 지원

###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참여 지원

- **체험대상** 고교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 및 예비학습근로자
- **체험장소** 고려아연(주) 안전체험교육센터(울산광역시 울주군)
- **체험내용** 보호구 안전 및 플랜트안전체험, 화재안전 및 심폐소생술 체험 등 약 2시간 30분 내외 소요

### 산업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 **산업안전전문 강사 인력풀 제공** 도제학교에서 산업안전교육필요시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인력풀 제공
- **안전보건 콘텐츠 활용** 동영상 및 사진 기반으로 제작된 산업안전 VR 콘텐츠를 활용하여 도제학교별 필요한 안전교육 실시
- (활용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VR전용관\*에 접속하여 도제학교에서 필요한 콘텐츠 활용

\* VR전용관 : <https://360vr.kosha.or.kr/main>

- **산업안전 Key 메시지 제공** 학습근로자의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발송했던 SMS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Key 메시지를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신뢰도 있게 개선하여 정보 제공
- **산업안전보건교육 맞춤형 콘텐츠 제작** 제빵 분야 안전사고 관련 동영상 제작 및 예비산업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익혀야 할 필요한 안전 기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교안 제작 및 배포

# 고교 일학습병행 10주년, 현장의 주역에게 감사장을!



2025년 11월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고교 일학습병행 10주년, 현장의 주역에게 감사장을!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현장교사 인증과 현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1월 5일 엘리에나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고교 일학습병행 업무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업 10주년을 맞아 우수 교사 및 전담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고교 일학습병행 발전에 기여한 교사와 전담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 운영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교육청, 학교 관계자, 기업현장교사 등 330여 명이 참석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공단은 경기자동차고 등 140여 명의 우수 교사와 전담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주)서경산업 등 20명의 기업현장교사에게 1급 인증서를 전달했다.

긴밀히 협력한 결과라며, 현장교사와 전담자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서 기업현장교사와 우수교사, 전담자들이 직접 사례를 발표해 도제식 교육이 학교와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됐는지 소개했다.

이후 공단은 2026년 사업계획과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일학습병행의 지속적 발전과 현장 중심 지원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고교 일학습병행이 지난 10년 동안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학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4060, 다시 일의 바다로! '2025 K-오션 채용박람회' 개최



2025년 11월 5일, 노사발전재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4060, 다시 일의 바다로! '2025 K-오션 채용박람회' 개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 등 5개 기관 공동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11월 5일(수)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2025 하반기 K-오션 채용박람회'를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해운·항만물류산업 채용박람회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민국 해군본부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으로 진행했으며, 해운·항만물류 관련 기업 34개사와 구직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박람회에서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의 1:1 현장 면접과 더불어 해상근로자\*를 꿈꾸는 구직자들이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부선 부원\*\* 직업체험, 생애경력설계 컨설팅, 노동법률 상담, 입사지원서류 클리닉, 퍼스널 컬러

컨설팅,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취업 타로 등 중장년 대상의 구체적인 채용 기회와 다양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했다.

\* 해상근로자: 선장, 항해사, 기관사, 갑판원 등 선박에서 일하는 근로자

\*\* 예부선 부원: 다른 선박을 끌거나 미는 예인선(예부선)에서 일하는 선박 승무원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동북아 해운·항만물류의 핵심 거점인 해양수도 부산에서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만물류 우수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한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 기반 산업과 중장년 인재의 활발한 매칭을 통해 중장년 고용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I 전환에 대응하는 성장동력 확보



2025년 10월 29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AI 전환에 대응하는 성장동력 확보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혁신에 기반한 인공지능(AI) 교육훈련을 꾸준히 추진해 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이문수)은 구직자 및 재직자 AI 교육 지원, AI·빅데이터 활용 고용 서비스 혁신 등 AI 역량 강화를 주요 핵심 과제로 제시한 국가 전략에 발맞추어 2025년에도 AI 이러닝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AI 기본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은 물론, 데이터 분석부터 실제 기획, 설계, 구현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과정까지 약 120여개 AI 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역량 강화에 보다 집중하여 AI 리터러시 과정을 순차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AI 이용이 확장됨에 따라 중요도 또한 높아진 AI 윤리에 대해서도 STEP은 놓치지 않고 관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평생교육원 이문수 원장은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STEP 이러닝 과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미래 역량을 함께 키워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AI 이러닝 과정은 STEP 홈페이지(step.or.kr)에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상시 학습이 가능하며 11월 중에 진행 중인 AI 과정 수강신청 이벤트에 참여하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AI 기본 개념 학습

## AI, 이제 '업무'에 필수 스킬! 실무에 바로 써먹는 AI역량, 지금 업그레이드 하세요!

**AI 과정 수강신청 이벤트**  
11.1.(토)~11.23.(일)

**AI과정 전체보기 >**

<p><b>인공지능 미래를 준비하라</b></p> <p>저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후면?</p>	<p><b>머신러닝과 딥러닝</b></p>	<p><b>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이해</b></p>
<p><b>&lt;인공지능&gt;</b> 인공지능의 개념과 종류, 원리 및 다양한 활용사례 등 기본 개념 학습 과정</p>	<p><b>&lt;머신러닝과 딥러닝&gt;</b> 데이터 분석가들에게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전처리, 구조화, 알고리즘 선택 및 구현 학습</p>	<p><b>&lt;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이해&gt;</b> 실생활 속 적용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능 서비스 구현에 대한 기초 학습</p>

## AI 실무 중심 과정

<p><b>인공지능(AI) 서비스 구현</b></p>	<p><b>인공지능 플랫폼 기억화 구현 실무</b></p>	<p><b>ChatGPT 개발 활용 소금</b></p>
<p><b>&lt;인공지능(AI) 서비스 구현&gt;</b> AI 서비스를 기획, 운영하는 관리자가 반드시 학습해야하는 전반적인 제반 사항 습득 과정</p>	<p><b>&lt;인공지능 플랫폼 지식화 구현 실무&gt;</b>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의 개요, 활용 방법론 등 세부사항 학습 과정</p>	<p><b>&lt;ChatGPT 개발 활용 초급&gt;</b> GPT 작동원리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OpenAI API를 이용한 문장 생성 기법 학습</p>

## AI 리터러시

<p><b>AI 리터러시 기초</b> ARTIFICIAL INTELLIGENCE LITERACY</p>	<p><b>다양한 AI 서비스 활용 기초</b> FUNDAMENTALS OF AI SERVICE UTILIZATION</p>	<p><b>사무직의 AI 리터러시 향상하기</b> AI LITERACY IN OFFICE WORKERS</p>
<p><b>&lt;AI 리터러시 기초&gt;</b> 이론과 실습을 통해 AI의 개념, 원리, 활용역량을 단계적으로 습득하는 입문 과정</p>	<p><b>&lt;다양한 AI 서비스 활용 기초&gt;</b> 최신 생성형 AI도구를 직접 실습하며 창작에 적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실습 중심 교육 과정</p>	<p><b>&lt;사무직의 AI 리터러시 향상하기&gt;</b> 사무직 업무에 특화된 생성형 AI 활용법을 실무 중심으로 학습하는 과정</p>

## AI 윤리

<p><b>인공지능과 사람, 함께 산다는 것</b></p> <p>조성배 교수</p>	<p><b>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논하다</b></p>	<p><b>인공지능 시대를 말한다</b></p> <p>AI</p>
<p><b>&lt;인공지능과 사람, 함께 산다는 것&gt;</b>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 방향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해보는 과정</p>	<p><b>&lt;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논하다&gt;</b>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바람직한 방안 통찰 과정</p>	<p><b>&lt;인공지능 시대를 말한다&gt;</b> AI 정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철학적 논의를 통해 지식과 통찰을 갖는 과정</p>

# 공정하게 묻고, 실력으로 답하다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시상식 개최



2025년 11월 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공정하게 묻고, 실력으로 답하다**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시상식 개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형별 피드백, 어학 인정기간 연장 등 공정채용 우수기업 22개소 시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11월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이하, '공정채용 시상식')'를 개최했다.

\* 공정채용이란? 채용의 전 과정에서 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②직무 '능력' 중심으로 지원자를 평가하여 ③기업·구직자 모두 '공감'하는 채용

공정채용 시상식은 '17년부터 개최되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5개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와 2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주최하고 있다.

올해는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가 반영되어 작년보다 늘어난 총 108개의 기업(기관)이 참가했으며,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민간기업 12개소와 공공기관 10개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채용 결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받기 원하고, 원거리 면접 및 잦은 어학 시험비 등 과도한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채용 절차를 운영한 기업(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수상 사례를 공정채용 3대 요소별로 살펴보면, 첫째, 외부 전문가가 채용 전 과정을 점검하거나 세부 전형정보를 사전에 공개(한국부동산원,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 면접 평가 피드백이나 역량진단 보고서를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주식회사 유토비스 등), 전형결과를 5일 내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를 안내((주)씨엔알리서치, 주식회사 청밀 등)하는 등 채용 과정 중 투명성이 증진되었다.

둘째, 자기소개서 폐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삼공(주)), 현장 실무자가 평가에 직접 참여((주)인플루디오), 정형화된 이력서 대신 자유양식을 도입하여 구직자의 역량과 스토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주)한백건축사사무소)하는 등 능력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졌다.

셋째, 인사담당자와 실시간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국가보안기술 연구소, 한국쓰리엠(주)), 지역별 필기고사장 배치, 면접비 지원(한국산업 단지공단), 취업캠프·채용설명회·채용알림서비스 등을 통한 소통 강화(한국마사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어학 시험 인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케이위터기술(주))하는 등 기업과 구직자가 모두 공감하는 채용이 이루어졌다.

권창준 차관은 "올해 수상기업이 보여준 공정하고 혁신적인 채용 방식이 현장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공정한 채용 질서의 바탕이 되는 채용절차를 정비하고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한편,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은 능력에 따라 원하는 일자리를 얻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만나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인적자원개발지수, 2년 새 53.9점에서 47.4점으로 하락"



2025년 10월 13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인적자원개발지수, 2년 새 53.9점에서 47.4점으로 하락"**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능연, 기업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추이 분석

▣ 우리나라 기업의 최근 인적자원개발지수(HRD-Index) 평균은 47.4점이며,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 수준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도 평균(53.9점)에 비해 6.5점 감소한 수치이다.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9월 30일(화) 동향지『THE HRD REVIEW 28권 3호 조사통계 브리프(인적자본기업패널 II 조사 기업의 HRD-Index 동향)』를 통해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 및 추이를 분석했다.

※ 국직업능력연구원의 '인적자원개발지수(HRD-Index)'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현황을 수치화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원이 생성하는 '인적자본기업패널(100인 이상, 500개 기업 표본)'을 이용하여 만든 지수이다.

4차(2023)년도 분석 대상 기업의 HRD-Index

(단위: 점, 100점 만점)

구분	하위 10% 평균 (A)	평균	상위 10% 평균 (B)	B-A	
전체	33.6	47.4	62.1	28.5	
산업별	제조업	33.3	46.5	59.8	26.5
	금융업	44.4	58.9	68.8	24.4
	비금융서비스업	36.7	49.2	62.4	25.7
규모별	100~299인	32.3	44.4	56.6	24.3
	300~999인	37.2	51.0	63.2	26.0
	1,000인 이상	44.2	56.9	71.1	26.9

▣ 인적자원개발지수의 하위지수별로 보면 인적자원개발 투자 및 환경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교육훈련비가 가장 크게 감소했다.

- 투자('교육훈련비' 9.3점/30점 만점, '교육훈련 시간'은 5.6점/14점 만점)와 환경('교육훈련 인프라' 6.1점/14점 만점, '인적자원개발 여건' 7.3점/14점 만점) 지수가 인적자원개발 활동('형식훈련' 8.3점/14점 만점, '비형식훈련' 9.0점/14점 만점) 지수에 비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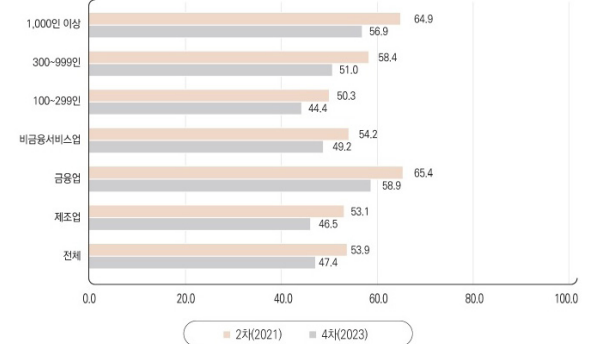
- 투자 지수 중 교육훈련비 지수 전체 평균은 2021년 18.8점에서 2023년 9.3점으로 대폭 하락하였다. 이는 모든 산업 및 규모에

▣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최근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이 위축된 가운데, 100인~299인 규모 기업과 제조업 및 비금융 서비스업 기업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 규모별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인적자원개발이 활발했으며, 100인~299인 기업의 하위 10% 평균(32.3점)은 매우 저조한 수준을 기록했다.
- 산업별 평균을 보면 제조업(46.5점) 및 비금융 서비스업(49.2점)이 50점을 하회하고 있어, 금융업(58.9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4차(2023)와 2차(2021) 년도의 HRD-Index

(단위: 점)



걸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금융 서비스업 및 1,000명 이상 기업의 하락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교육훈련직접경비 투자'에서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주홍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300인 미만 제조업 기업의 위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별 규모별 인적자원개발 활동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올해 9월 육아휴직 사용자 14만명 돌파, 아빠 육아휴직 비중 약 37%



2025년 10월 28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올해 9월 육아휴직 사용자 14만명 돌파, 아빠 육아휴직 비중 약 37%**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 1~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141,909명으로 작년 연간 수급자 추월
- 노동부, 중소기업 사용 부담 완화 위해 내년 지원 예산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1,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3,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2,535명)를 이미 넘어선 수치로 제도개선\*과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150→250만원) ▲기간 연장(1년 → 최대 1년 6개월) ▲복직 6개월 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사후 지급 방식(급여의 25%) 폐지

◀'24~'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구분	전체 수급자	남성	여성
'24년	132,535명 (100.0%)	41,829명 (31.6%)	90,706명 (68.4%)
'24년 1월~9월	103,596명 (100.0%)	33,257명 (32.1%)	70,339명 (67.9%)
'25년 1월~9월	141,909명 (100.0%)	52,279명 (36.8%)	89,630명 (63.2%)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아빠 사용 비율 약 37%

특히,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52,279명)는 전체의 36.8%로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으로 나타나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24년~)의 현장 정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1~2월) 250만원, (3월) 300만원, (4월) 350만원, (5월) 400만원, (6월) 450만원 지급

##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 비중 58.2%, 내년 지원은 더욱 확대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2,620명(전체의 58.2%)으로 전년 동기(57.0%) 대비 1.2%p 증가했다.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66,255명(46.7%)에 달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았다.

먼저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존 금액 상한액을 현재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현재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수준도 인상한다. 현재 월 20만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르거나 복잡해서 못 쓰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 밀착형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가칭)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사업’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분	주요 내용
<신설>육아기 10시 출근제	☑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1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최초 10시간 220→250만원, 나머지 시간 150만원→16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 월 지급 한도 인상: ('25년) 월 120만원 →('26년 정부안) 30인미만 월140만원, 30인이상 월130만원
	☑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50%를 지급하는 사후지급 방식 폐지
	☑ 육아휴직 복직 후 인수인계기간 1개월에 대한 지원 추가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 월 지급 한도 인상: ('25년) 월 20만원 →('26년 정부안) 30인미만 월 60만원, 30인이상 월 40만원
	☑ 신청 서류 간소화
<신설>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 위탁기관을 통해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등 현장밀착형 정보제공 및 정부지원 연계

'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정부 예산안 기준)

제도명	제도 설명	개선 내용	현행	개선	제도명	제도 설명	개선 내용	현행	개선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한 사업주 지원	지원금 상향	월 1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130만원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권역별 주요 산단-테크노파크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핵심 타겟으로 현장 밀착형 정보 제공, 상담 등 정부 지원 연계	신설	-	사업비 9.5억원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 지원	지원금 상향	월 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최초 10시간> 220만원 <나머지> 150만원	<최초 10시간> 250만원 <나머지> 160만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1일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 삭감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신설	-	<사업주> 월 30만원	일·생활 균형 시스템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편의를 위해 시스템, 사용자 등 지원	지원대상 제도 확대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등까지 확대

# “특성화고 교육, 학생 주체성 발달에 긍정적 작용 확인”



2025년 10월 30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특성화고 교육, 학생 주체성 발달에 긍정적 작용 확인”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능연, 고등학생 6천여명의 초6부터 고2까지 학생 주체성 변화 분석

특성화고 교육이 일반고보다 학생의 주체성 발달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10월 30일(목) 『KRIVET Issue Brief 308호(학생 주체성 발달, 특성화고 교육의 기회와 도전)』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의 대상은 고등학생 6,145명(특성화고 학생 928명(15.1%))으로, 이들의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분석했다(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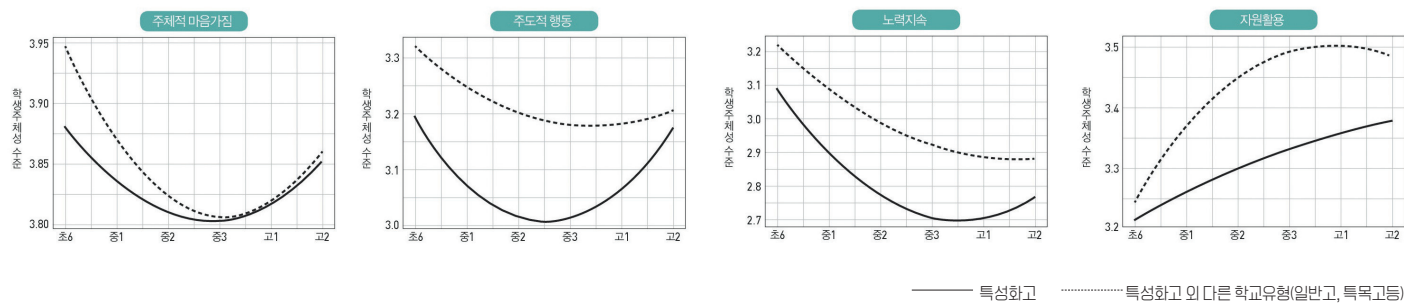
학생 주체성은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 중 ‘주체적 마음가짐’, ‘주도적 행동’, ‘노력 지속’, ‘자원 활용’ 등을 측정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1학년 시점부터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주체성’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 주체성 발달에 대한 특성화고 교육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학생 주체성을 살펴보니, 고등학교 1학년을 기점으로 차이가 줄었다.
- ‘주체적 마음가짐’과 ‘주도적 행동’에서 상대적으로 격차가 크게 줄었다.
- 특성화고 학생의 ‘노력 지속’은 고등학교에 진입하면서 다른 학교 유형의 학생들보다 빠르게 회복했고, ‘자원 활용’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차이가 커졌다.
- 특성화고 교육이 학생 주체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을 시사한다.

## 학생주체성의 종단적 변화추이(인구통계학적 변인+중1성적 통제)

(단위: 점 / 5점 만점)



특성화고 여학생은 ‘행동’, 남학생은 ‘마음가짐’ 측면에서 더 주체적이었으며, 가구소득과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의 주체성도 높았다.

성별에 따른 ‘주체적 마음가짐’과 ‘주도적 행동’을 살펴보면, ‘주체적 마음가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다만, ‘주도적 행동’은 고등학교 진입 이후부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체적 마음가짐’과

‘주도적 행동’ 모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특별시와 읍면 지역 학생들이 중소도시 학생보다 주체성 수준이 높게 조사됐다.

본 연구를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수현 부연구위원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주체성이 고등학교 시기에 회복되는 양상이 관찰됐다”며 “진학과 취업 과정에서 주체성이 억제되지 않도록 학교 문화 쇄신과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25년 9월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2025. 10. 17.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5년 9월 고용동향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률(63.7%) · 경제활동참가율(65.0%)은 월간 역대 1위, 실업률(2.1%) 취업자수 +31.2만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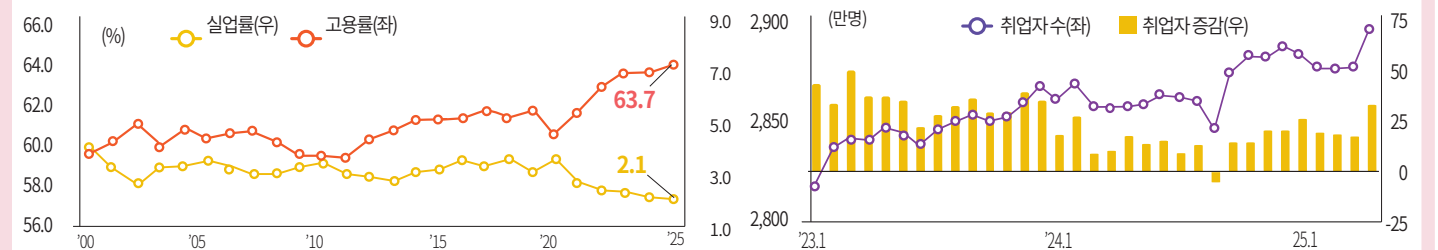
15세 이상 고용률(63.7%)로 전년대비 상승, 15~64세 고용률(70.4%, +0.5%p) 역대 1위

경제활동참가율(65.0%, +0.4%p) 역대 1위

실업률(2.1%)은 보합 9월 기준 역대 최저 1위

취업자수 전년대비 +31.2만명 증가,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8.1만명 증가

⇒ 15세 이상 고용률 · 실업률(원계열, 매년 9월) +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원계열, 계절조정, 전년대비)



(산업) 서비스업 증가폭 확대, 제조업 감소폭 보합, 건설업 감소폭 축소

서비스 최근 내수 개선흐름으로 연안 서비스업(예술여가, 숙박음식, 도소매 등) 중심 증가폭 확대되며 55개월 연속 증가(+48.4→+58.8만명)

예술여가(1.6→7.5만)도소매(0.0→2.8만)숙박음식(0.0→2.6만) 등은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 및 명절특수로 증가폭 확대

전문과학(3.1→2.9만), 금융보험(3.2→3.0만) 등은 상반기 증가 흐름이 조정되며 증가폭 축소, 정보통신(△1.6→△1.3만)은 2개월 연속 감소

보건복지업(30.4→30.4만)은 돌봄수요 증가 및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사업 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 지속

제조 연휴이동(‘24년9월중→’25년10월초)에 따른 일평균 수출 감소에도 내수 개선, 자동차선박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감소폭 보합

건설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 흐름 개선세 등으로 전월 대비 감소폭 축소(△132→△84만명)

농림 상반기 작황부진 여파 등에 따라 감소폭 확대(△13.8→△14.6만명)

(지위·연령) 상용직 비중 57.2%(+0.6%p), 3~50대 · 고령층 고용률 상승

지위 상용직 증가폭 축소(+34.0만명),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

비임금근로자는 고용 0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중심으로 감소

연령 30대 이상 연령대에서 고용률 상승, 청년층은 하락폭 축소

청년층 고용률(45.1%, △0.7%p) 하락, 실업률(4.8%, △0.3%p) 상승

청년층 쉬었음(40.9만명, △3.4만명)은 5개월 연속 감소

30대는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수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 4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

5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 60세 이상은 고령층 경제 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고용률 상승 지속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되며 19개월 만에 30만명대 증가, 경찰·고용률 역대 최고 내수개선으로 서비스업 중심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청년 고용 어려움은 지속

서비스업은 최근 소비심리 개선세 및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예술여가·도소매 등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

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가 본격 작용하는 가운데, 명절(10월초) 전 성수품·여가 소비 증가도 고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

건설업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감소세가 지속되나,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 개선세 영향 등으로 감소폭 축소

제조업은 美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내수 회복세, 반도체 등 주요품목 수출실적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며 감소폭 보합

청년은 5개월 연속 쉬었음 감소, 고용률 하락폭 축소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지속

⇒ 경기 회복·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위해 내수 활성화·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

1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9.22~)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10.29~11.9) 준비에도 만전

\*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되던 소비행사 통합 개최

2 美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기업 피해 지원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총력

3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4 구직·쉬었음 청년 맞춤형 지원\*, AI 중심 일경험·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 고도화하고, 지역특화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정보 제공 확대

\* 장기 미취업 청년 발굴 → 지원사업 연계 및 특화 일경험 확대(일자리첫걸음보장제)

\*\* K-디지털트레이닝 Top-tier AI 융복합 과정 신설(‘26년 1만명), 군장병 AI 전사 육성(‘26년 5만명) 등

# Generative AI and Jobs



ILO 2025년 5월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Generative AI and Jobs**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과업 단위 AI 영향 분석
- 여성·사무직·고소득국 중심 Gen AI 영향도
- 기술 도입률과 인적역량 차이의 국가 간 격차 유발
- 노동시장 재구성
- AI 수용을 위한 교육·훈련·윤리 기준 필요성

### 주요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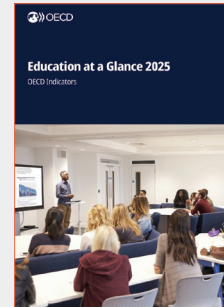
- 생성형 AI 기술 개요
- 직무 수준 자동화 가능성 분석
- 고소득국과 저소득국 비교
- 성별·연령별 영향 격차

# Education at a Glance 2025



OECD 2025년 9월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Education at a Glance 2025**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VET 이수자의 고용률·소득 데이터
- 교육 구조와 재정, 훈련방식
- 진로·소득·참여율 측면 고등교육과 VET 비교
- 평생학습에 대한 각국 정책 변화
- 교육 접근성 격차 지표

### 주요목차

- 학습 성과 및 고용 연계
- 참여율 및 진학경로
- 교육재정 및 투자
- 교원 역량과 조건
- 성인역량조사(PIAAC)

#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25



ILO 2025년 1월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25**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성장 둔화, 불평등 심화 등 회복 지체 원인
- 청년·저숙련층 훈련 불균형 현상
- 비공식 고용 확산 경고
- 고용·복지 통합 사회보호 시스템의 필요성
- 노동시장 정책 및 스킬 향상 지원 제한

### 주요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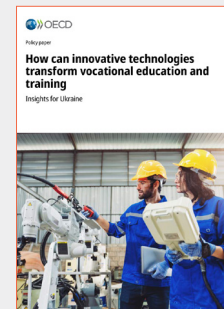
- 세계 고용 회복 현황
- 경제·지정학기후 변화 영향
-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분석
- 노동품질 및 훈련 연계
- 정책 방향 제시

# How can innovative technologies transform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ECD 2025년 5월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How can innovative technologies transform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AI, AR/VR, 디지털 시뮬레이션 등 기술적용 사례
- 자기주도학습·적응형 콘텐츠 확산 등 학습자 중심 설계
- 학습 데이터 기반 개인화된 역량 측정 평가 혁신
- 기업·기관 공동 설계 강화
- 비용·교사훈련·기반 불균형 문제

### 주요목차

- VET 내 신기술 도입 유형
- 학습경험 개선을 위한 기술활용
- 사용자(학습자·고용주) 참여 확대 전략
- 정보 공유 및 평가 메커니즘 변화
- 정책·예산 과제



- 10.23 일학습병행 우수기업 간담회
- 11.11 기특한 명장 제도 도입·시행
- 11.14 2025년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시상 및 NCS 리더스 클럽 개최
- 11.20 2025년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 학교·학생 시상
- 11.20 스텝(STEP) 학습 우수사례 시상식



- 10.1~11.12 2025년 충북지역 대학생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 11.6 제6회 신직업·미래직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 11.10~11.28 한국고용정보원 SNS채널 만족도 조사
- 11.12 스리랑카 교육부 대표단 방문 연수
- 11.21 한국취업진로학회 추계 공동학술발표대회



- 10.31.~11.14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신규 선정 신청·접수
- 11.4.~11.8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중앙부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심사 신청·접수
- 11.7 미래교육혁신처 직업훈련교강사 대상 신기술·첨단산업분야 인재양성 컨퍼런스
- 11.12~11.21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제5차 원격훈련과정 심사 신청·접수
- 11.28 능력개발교육원 2025년 직업전문학교 교장단 워크숍
- 11.1~11.23 온라인평생교육원 AI 역량강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 이더닝 과정 서비스 확대·AI 과정 수강신청 이벤트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0.31 2025년 울산대학교 오픈캠퍼스 개최
- 11.7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시상식 개최
- 11.10 2025 부산청년 글로벌취업박람회 개최



- 11.7~25 2026학년도 학위과정 수시2차 원서접수
- 11.4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기술(주) 3자간 업무협약
- 11.5~6 서울특별시 일자리 박람회 체험관 운영
- 11.6 트라닉스(주) 업무협약
- 11.19 KB굿잡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 체험관 운영
- 11.25 부천시 중장년 특화 교육과정 운영 업무협약



- 10.1 개원 28주년 기념 심포지엄「성장과 고용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재설계」
- 10.1 제4차 직업능력개발포럼
- 11.4 제3차 ISC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포럼
- 11.5~11.6 글로벌 인재포럼(2025)
- 11.6 마이스터고 신규지정 설명회 개최
- 11.6 제5차 직업능력개발 포럼
- 11.7 제9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포럼
- 11.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불확실성의 시대, 청년의 길을 묻다」
- 11.2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보고회 개최
- 11.26 제9차 국가진로교육포럼

# HRDK가 알려드려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이 궁금해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백배 활용법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이  
궁금해요!

HRDK가 알려드릴게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이란?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모범적인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수여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HRD4U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공고문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4월 사업공고 및 신청	2 4월~5월 사업설명회	3 5월~6월 서류심사	4 6월~8월 현장심사
8 10월~12월 연수 및 홍보	7 9월 인증 수여	6 8월 인증위원회	5 8월 심사위원회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Q. 우수기관 인증 수여 시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인증 기업에는 4개 부처 공동 명의 인증서·인증패가 수여되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 시 대표자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Q.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심사 기준은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 두 부분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표를 평가합니다. 세부 심사표는 HRD4U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Q. 인증수여식은 무엇인가요?

A. HRD 인증을 받은 기관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다른 기관의 인적사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푸른 미래를 엮다  
국가대표  
기술교육

# 2026학년도 직업교육과정 신입생 모집

2025년 11월~캠퍼스별 모집 마감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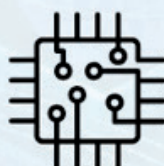


## 전문기술과정

만 15세 이상 구직자 대상

학력, 경력, 자격  
제한 없음

1년, 10개월 과정



## 하이테크과정

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

아래 중 한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 ① (학력)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 ② (자격)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③ (경력) 동일 및 유사계열 2년 이상 실무종사자

1년, 10개월, 6개월 과정



## 중장년특화과정

만 40세 이상 구직자 대상

학력, 경력, 자격  
제한 없음

장기(4~6개월) 과정

입학문의 대표전화

1

5

8

8

-

2

2

8

2